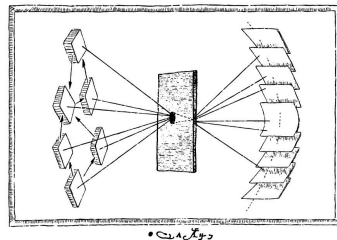


사라짐에 관하여

당신이 방문한 〈헤버릿 텍스트 페어〉(2026.02.07-02.28)는 공간 수건과화환(2021-2026)의 마지막 전시이다. 2021년 〈텍스트 뷔페〉 참여를 시작으로 만 5년의 시간을 가까이서 멀리서 보아온 나는 이 공간의 사라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그것을 '안타까움'이나 '슬픔'으로만 남기고 싶지 않았고, '사라짐'을 실패나 소멸로 여기고 싶지 않았다. 몇 달 전 나 역시 '웃과책'이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생애주기(life cycle)처럼 사라지고 생겨나는 공간들을 생각하는 동시에, 더 이상 '공간'이 유효한 생각의 단위가 아니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 공간이 품고 살아갔다가, 또 다시 남기고 가는 무형의 것들을 말해야 한다. 그것을 감각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수건과화환의 이예현을 인터뷰했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수건과화환에서



이여로 03:00

처음에 후암동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뒤로도, 처음에도, 공간을 소개할 때 '신생공간'이라고 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이예현 03:19

맞아요. 신생공간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여로 03:24

그게 좀 묘하다고 생각했는데, 후암동 때가 2021년이었나요?

이예현 03:33

21년 4~5월쯤, 네.

이여로 03:36

신생공간이 약동했던 때가 2015년 전후이고, 2021년에는 이미 신생공간을 회고하고 역사화하는 시기였는데, 왜 여기는 신생공간이라고 소개를 하지? 예현 님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오시고 [REDACTED] 갤러리에서 일하셨는데, 그러면서 시차가 발생한 걸까.

이예현 04:27

어 뭐야 [REDACTED] 미술관

이여로 04:30

어쨌든 좀 이상한 곳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예현 04:35

[REDACTED]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여로 04:36

거기서 근무하시면 쌓였던 불만이랄까, 아쉬움으로 수건과화환을 여셨다고
했잖아요.

이예현 04:51

[REDACTED]는 일단 제 경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었던 차에 미술관에서
일해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간 건데 대부분 유학생이라든가 사회 초년생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갈아치우는, 이런 곳이 예술가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쳐가는
플랫폼이 된다면 너무 안 좋은 영향이겠다 싶더라고요. 다들 그냥 예술계를 빠져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지켜줄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건 기관의 역할에 가까운 것 같고, 말씀처럼 21년도에 신생공간이라 칭하면서 시작한 곳은 별로 없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겹치면서 전환점을 맞던 시기였어요. 오히려 되게 많은 전시 공간들이 생겼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신생공간은 [대중적인] 주목은 못 받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줄 서서 갤러리를 가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전시를 찾아다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숨겨진 공간을 찾아다니는 게 보이지 않는 봄이 되었던 것 같고, 그걸 알아차려서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개인 단위로 전시 기금도 더 많이 확대된 것 같고.

[한국에 와서 뒤늦게 알게 된] 신생공간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오히려 새롭게 다가왔었고, 그 말을 부담 없이 그냥 썼던 것 같아요. 포스트 신생공간이라는 말도 있왔는데, 그건 조금 유치하게 들렸고, 그냥 쉽게 생겼다가 또 쉽게 사라지는 형태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신생공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오히려 이 말로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하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여로 07:26

저도 옷과책을 만들 때 고민이었던 게, 이 공간을 규정할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은 느낌. 책을 팔지만 서점도 아니고, 옷을 팔지만 편집숍도 아니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담을 만한 이름이 뭐지,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예현 08:00

거기에 가깝죠?

이여로 08:02

문자 그대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인데. 또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면 성수동 같은 데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듯한 이미지다 보니까.

이예현 08:12

이런 느낌.

이여로 08:14

그래서 저는 '인포숍'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수건과화환도 신생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여기서 내가 이어받고 싶거나 가져오고 싶은 특성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예현 08:38

시작이 매력적이었어요. 어차피 예술가는 싼 임대료를 찾아 작업실을 구하기 마련인데, 기존의 갤러리나 전시 공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작가가 자기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근데 2021년에는 공간들의 성격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관객으로 방문했을 때 형식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신생공간이 시작된 배경이나 조건을 가져오되, 형식적인 것을 좀 탈피해 보자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상한 철칙 많았었잖아요. 기금 안 받는다, 포스터 안 만든다, 리플렛 안 만든다, 기존 전시 형식들을 하나씩 빼내보면서, 왜 이런 형식으로 고착됐는지 자문하는 것도 있었고, 그것을 빼고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것 같고요.

이예현 09:49

전시 리플렛을 안 만드니까 방문하신 분들께 제가 직접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상주하면서 응대를 하는 공간이 됐던 거죠. 관람객과 스몰토크도 많이 하고, 왜 관람을 하셨는지 어떤 전시를 필요로 하시는지 계속 피드백을 들으면서 전시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이예현 10:14

[여로 님은] 초반에 오셨을 거고, 10월쯤인가 9월쯤에 오셨을 거예요.

이여로 10:19

첫 <텍스트 뷔페> 참여자로 방문했던 것 같은데, 신생공간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전시되는 텍스트도 특정성이 강했잖아요. 아는 사람만 알고, 가는

사람만 가는. 후암동 오래된 건물의 반지하도 매우 거친 공간이구요. 근데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되게 대중적인 관객이 많네? 그게 신기했어요.

이예현 11:23

맞아요, 충격적인 관객도 많았어요. 어떤 관객 [REDACTED]분은 딱
[REDACTED]에 [REDACTED] 반지하로 내려오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충격적이에요.

이여로 11:38

당시에 수건과화환을 검색했을 때, 본인이 방문한 전시 리스트를 정리해서
올려주신 분이 있었는데, 수건과화환이 예술의전당이랑 같은 리스트에
있더라구요.

이예현 11:52

다들 잘못 오신 게 아닐까(웃음).

이여로 11:53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의도하고 홍보나 노출을 시키셨는지?

이예현 11:58

아니에요, 텍스트뷔페는 진짜 신기하게 바이럴이 됐던.

이여로 12:03

어떻게? 인스타 통해서?

이예현 12:05

인스타도 그렇고, 그때 블로그에 많이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영화 감독, 에디터, 디자이너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여로 12:21

인스타 광고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히 무언가를 하진 않았는데, 자체 바이럴이 됐던.

이예현 12:26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 착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것을 사업적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전시 구조에서]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가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였고, 사람들이 한창 나가고 싶은데 갈 곳은 없고, 그러면서 작은 단위의 공간이 주목을 받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챔버, 팩션, 상하울, 캡션... 그때즈음 다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여로 13:17

근데 이제 ■■■ 같은 곳들은 대관 장사를 하잖아요.

이예현 13:33

처음에는 아니었어.

이여로 13:34

코로나 지나고, 공간들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그전까지 나름대로 운영할 수익은 내면서, 썬의 구성원들과 공생할 자원을 나눈다고 보였던 공간들도 언제부턴가 대관료 장사를 하더라구요. 지원 사업 끼고 오는 작가만 받는 곳들도 충격적이고... ■■■ 든 어디든 사실 그 주변 시세를 뵈히 아는데, 월세가 ■■■ 안팎일 텐데 무슨 일주일 대관료로 ■■■ 을 받으니까.

이예현 14:15

그 정도도 썬 겁니다. 이제는.

이여로 14:18

왜 그런 거예요?

이예현 14:25

제가 봤을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생공간의 주체는 작가였거든요. 작가가 자기 작품을 보여주려고 전시 공간을 꾸린 건데 전시 공간이라는 포맷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더 이상 공간의 운영자가 작가가 아니라 운영자라는 전문성이 생겨버리고, CEO처럼요, 거기에 다른 작가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바로 그걸 극복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신생공간인데, 이제 다시 작가가 공간이 없어서, 지원사업이 없어서 전시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여로 14:54

신생공간이 처음 시작되었던 조건과, 남겨진 것 사이에 괴리가 크네요.

이예현 15:16

반복되는 거죠. 대안 공간, 신생공간, 그리고 그 다음…. 돌아가는 거죠.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겠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 ■■■ 같은 곳에서 80-90년대 특정 갤러리들이 하던 것처럼 작가를 띄울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런 규모가 된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역할을 띠게되기까지 공간 자체의 역량만 아니라 앞선 신생공간의 흐름이나 코로나라는 시기적 특수성이나 쌓아온 인프라 덕분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자리를 잡은 뒤에 대관으로만 운영되는 전시 공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모든 공간이 대관을 돌리는 건 아니니까, 대관을 해도 나름의 규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챔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투명하게 명시를 하거든요.

이예현 16:12

대관료라든가, 그것도 되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하시기도 하고 옆에 있는 유명공간도 대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안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런 곳들이 적절하게 운영해가시는 모습을 보면 대관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대관 자체가 사업적인 규모로 수익이 나다 보니까 전시 공간의 운영 철학이 작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함께 도모한다는 성격에서 벗어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예현 17:01

그래서인지 차라리 분명하게 상업화로 전환한 전시 공간들이 더 잘한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전에 못했던 걸 다시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신생공간이 순수한 비영리로 1, 2년 하다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속할 수 있으면 지속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이여로 17:28

말씀 들으니까 저는 수건과화환이 지원금에 의존하는 대관 사업도 아니고, 갤러리도 아니고, 다른 것을 추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응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기존의 미술 관객이 아닌 사람들까지 관객으로 상정하면서 만들어 내는 대중성, 그것에 기반한 상업성을 지향하셨던 것 같아요.

이예현 18:02

맞아요, 예술계만 상정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 바깥을 생각하게 된 거죠.

이여로 18:12

대중을 타자로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암동 반지하에서 화이트 큐브에 가까운 운우미술관 건물로 옮기신 것도 그런 맥락이었을까.

이예현 18:39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예술 씬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철학은 유지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제일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뷔페라는 포맷이 성공적이었다 보니까 이것을 상설 전시로 진행할 수 있겠다. 작가님들도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늘려가고 처음에 그게 목표였었는데 잘 안 됐죠.

이여로 19:17

왜 잘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예현 19:20

이유를 저도 알고 싶어요. 사업적으로 생각해보면 '텍스트뷰페'라는 아이템이 일단은 코로나 때의 특수성과 맞물려서 먹혔던 것도 있고, 여기로 오면서 오히려 더 있어 보이려고 하고 더 꾸미니까 오히려 과거에 사람들이 찾았던 색깔을 잃고, 옹기고 난 초반에 과도기랄까 예약제였다가 아니었다가 계속 방식을 바꾸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인가, 모호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완전히 상업적으로 밀고 가기에는, 스스로 재미있고 실험적인 전시도 하고 싶고, 그런데 또 돈은 벌어야겠고, 두 가지가 상충되면서 한 3, 4개월 정도는 되게 부진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꽤 오셨긴 했는데, 저희가 여기 월세도 조금 비싸게 들어왔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업적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했었죠. 지금도 방향하고 있긴 한데.

웃과책은 어때세요?

이여로 20:46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었어요. 고점을 높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점을 높여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도 안 와도 유지될 수 있는 형태가 뭘까, 했을 때 그게 제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삶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공존할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필요한 공간의 기능이 주거와 작업실이라, 오픈하기 전에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욕실 안에 나무로

가벽을 쳐서 침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자고. 옛날 동네 철물점이나
문방구보면 안에 사는 방이 있었잖아요. 요즘 해외에 홈 갤러리나 홈
스튜디오 같은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그게 쉽다고 소개되던데, 저희는
철물점을 생각하면서...

이예현 21:23

효율성의 끝을.

이여로 21:27

그러니까요.

이예현 21:28

자기 관리가 안 되면 힘든 건데.

이여로 21:31

옷과책이 전기세 등등 다 합치면 ■■■만 원 나오는데, 이제 작업실
친구들까지 5명이 나뉘었으니까 ■■■만 원씩이면.

이예현 21:41

괜찮죠.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여로 21:43

저의 가난 이슈로 이뤄진 형태이지만, 새로운 형태나 형식은 항상 한계와 필요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 신생공간도 그랬고, 그게 하나의 템플릿이 되는 순간 복제는 쉽게 되지만 거기에서 창조성은 또 쉽게 사라지는... 또 영향을 받았던 건 메버릭하우스 한결이 공간에서 자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는 2000년대생인데, 그걸 젊은 날의 치기로 간주하지 않고, 진지한 삶의 실험으로 생각해서 제 삶에도 들여오고 싶었어요.

이예현 21:56

이제 와서 느끼지만 여로 작가님이 하시는 방법이 지향점이 맞는 것 같아요. 전시 공간에도 일종의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열면 사람들이 오겠지, 내가 잘 준비하면 오겠지, 라는 게 있는데 저점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멀리 봐야 되고, 지속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면서, 그다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현실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상을 펼쳐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했던 거죠.

이여로 22:33

여기가 월세가 ■■■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예현 22:35

맞아요.

이여로 22:37

후암동 거기는 얼마였어요?

이예현 22:40



이여로 22:42

3배가 넘네요.

이예현 22:44

미쳤죠. 제가 미쳤었어요. 그때 미쳤다. 그때 공간을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시기가 좀 그랬어요. 찾다가 찾다가 점점 눈만 올라가고, 이 정도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저는 이제 전업으로 할 생각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다 쏟아부으면은 어떻게든 될 거야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여로 23:09

수건과화환을 옆에서 보아 온 입장에서, 그 방향에 맞춰 대중적인 어프로치를 좀 더 했어도 좋지 않을까.

이예현 23:36

많이 한 것 같은데(웃음). 초반에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먹히고, 그래도 계속 했어야 되는데 해보고 안 되면 또 딴 거 하고, 이걸 반복하게 된 거고, 스스로 당황한 거죠.

이여로 23:54

커피 팔기 싫다는 이야기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공간들의 어떤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또 상업성에 대한 이유없는 반감 같기도 하거든요. 커피를 자기 매체로 다루는 바리스타나 로스터들을 뭐라고 생각하는거지 싶기도 하고. 접근성이나 현대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단지 '돈 벌려고 하는' 이상의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예현 23:55

근데 커피도 팔았어요. 별거 다 했었어요. 직접 한 건 아니고, 인근 카페와 협업해서 판매하고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힘들더라고요. 코로나가 딱 끝난 시점에서 시작한 거라서. 완전 이제 다른 구조가 돼 버렸고, 점점 사람들이 끊긴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주변 공간들도 생기는만큼 사라지고, 천천히 멀리 났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있죠.

그래서 저는 전시 공간도 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술적인 도전이나 시도를 하는 것도 맞지만, 작가와 작업을 서포트하고 싶다면 공간 운영자로서의 전문성이나 사업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같아요.

이여로 24:56

공간을 다시 축소해서 시즌 3를 한다가 아니라 완전히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예현 25:20

슬픈 얘기인데, 후암동 마무리할 때도 많은 분들이 걱정이나 안타까움을 표하셨죠. 계속 했으면 좋겠다, 잘 했는데 이제부터 기금도 타면서 이어가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진짜 하고 싶다가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구나, 그러면 계속 해도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마침 안 넣던 기금도 넣었는데 된 거죠.

수건과화환이 어떻게든 살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마무리를 하려고요. 일종의 미련 같아서요. 끊을 때 확실히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하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아예 해서 공간이 사라져야만 저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착같이 살아남는다는 느낌은 이전 공간에서 한 번 경험을 했고, 이번에는 아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은 짐도 다 처분을 할 생각이고...

이여로 26:57

공간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예현 27:03

이제는 취업을.

이여로 27:07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미술관?

이예현 27:11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종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인쇄 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요. 출판 쪽이나, 재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신생공간을 회고하는 기획이 2020년 전후로 있었잖아요. 10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생애 주기와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20대에 실험적으로, 도전적으로 해보다가 30대가 되면 노후를 생각하게 되고, 주거나 생활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면 실험적인 운영 자체가 힘들고 그렇죠. 오히려 이 시기를 지나서 살아남은 분들은 끝까지 대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 주기를 마친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이예현 28:51

근데 이여로 작가님은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이여로 28:56

삶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내 생활을 실험하지
않으면서, 실험적인 예술을 한다, 실험적인 공간을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나 일이죠. 옷과책이라는 공간은 물질을 잃어도 이어갈 것
같거든요. 이번에 옷도 함께하게 된 것처럼, 독립적인 활동들에 대한 관심은
매체와 무관하게 제가 살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을 것 같고, 만약 공간을 잃고
제가 뭐 모든 연을 잃어도(웃음), 그냥 더 작은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도
있고, 집을 쇼룸처럼 만들어서 오픈할 수도 있고.

이예현 29:35

여로 작가님의 인생에 옷과책이 스며든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게 요즘 트렌드 같기도 해요. 비인격적이거나 법인격적인 모습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예전에
가삼로지을이라는 공간도 그런 걸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얘기가 쏘네요. 아무튼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을 짜는 것도
전시 공간의 수행성의 일부인 것 같아요. 윈드밀은 퍼포먼스만 하는 공간, 요즘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시 공간보다는 그런 특수성이나 캐릭터를 갖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지 못한 공간들이 오래 못 버틴 것 같고요.

이예현 32:17

그래서 총 3가지 유형의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봤을 때 여기 뭐 하는 공간이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웃과책이나 험이라든가, 새로운 걸 계속 찾아가는 듯한 느낌의
공간이 있고, 이런 공간이구나! 윈드밀처럼 누가 봐도 아이덴티티가 확고한 느낌의
공간이 있고, 세 번째가 이런 공간이구나...라는, 형식화된 공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른 공간 운영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도 신생공간이라는 개념은
이제 확실히 사라진 것 같고, 그냥 독립 전시 공간인 것 같아요. 독립이라는 게 다들
너무 개별성이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윤리성도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아우르는 명칭을 붙일 의미가 이제 없는 것 같다.
개별성을 너무 확고하게 띠고, 그런 흐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젠 갈래가 계속해서
뻗지 않을까.

이여로 33:46

그럼 앞선 활동 중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의식하고 계셨던 활동들이 또
있으신가요?

이예현 33:55

‘호텔 이매지너리’라고 바로 이 뒤에 있었던 공간이에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인가, 제가 시작할 때쯤 문을 닫았었거든요. 신생공간이라고 명칭하진 않으셨고, 옷과책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새로운 범주를 가져오는 느낌, 호텔이라고 하시면서 예약제로만 받아서, 한 번 입장하면 러닝 타임이 거의 서너 시간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살롱처럼 티를 대접받고 또 기획자가 직접 전시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해주세요. 근데 그걸 또 퍼포먼스처럼 잘 해주셔서, 우연히 같이 있던 분들과도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거나 보면서 종료가 되거든요. 입장료도 2만 6천 원인가 2만 8천 원 정도 했었거든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항상 차 있었어요, 예약이.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가져갔고 또 공간도 너무 잘 꾸려냈고, 이렇게 기획성이 높은 전시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보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구나.

깨달음과 존경 같은 마음을 가진 공간 중 하나였어요. 거기도 혼자 운영하셨었는데 결국에는 문을 닫으시게 되더라고요. 운영은 너무 잘 됐었는데, 결국에는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여하간 저에게는 기획과 상업성 모든 걸 다 갖춘 공간이었어요.

이여로 36:26

홍태림 씨가 운영하셨던 크리틱-칼도 주기적으로 언급하셨잖아요.

텍스트를 다룬다는 점에서 끌리셨던 거예요?

이예현 36:51

크리틱-칼에서 느껴진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투고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의 느낌이잖아요. 글이 읽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깐,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 내가 공간을 만들면, 오프라인에서 이런 걸 구현하고 싶다, 계속 누군가가 투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투고를 바탕으로 계속 공간을 이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홍태림 씨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받기도 했죠. 근데 투고를 열어도 실제로 많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좋아요가 100개 찍혀도 실제로는 1명이 오듯이.

이예현 38:02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프라인 공간에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지친 것 같기도 하고, 흐름의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경험에 끌릴 때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진부해지면 다시 온라인으로 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로 작가님도 공간들이 사라지는 걸 봐 오셨잖아요. 어떠신가요? 어떤 시대가 저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또 새로운 게 생기겠다는 기대감? 혹은 이렇게 때문에 사라진다고 분석하시는지, 저는 그간 공간을 운영했다보니깐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사라지고 생기는 게. 여로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경각심이랄까, 사라지면 안 돼, 라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여로 40:24

글쎄요. 그런 개괄적인 생각은 저도 크게 없는데, 다만 수건과화환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에는, 공허함이랄까, 헛헛함, 이별하는 느낌(웃음)? 안타까움이 컸어요. 수건과화환이 운우미술관으로 옮기고나서, 제가 볼 때에도 갈팡질팡 한다는 느낌을 초반에 받았었거든요.

이예현 41:13

그렇죠.

이여로 41:15

그런데 점점 공간의 성격이나 지향, 리듬이 잡혀가고, 주변에서도 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껴지고, 특히 작년에는 텍스트 기반의 동료 집단들과 어울려서 해나가시는데,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서로 이어주는 허브 같은 느낌이었어요. 있는 것으로 든든한, 의지가 되는 느낌이었었는데 없어진단니까 좀 허허벌판에 홀로 남은 느낌.

이예현 42:10

[벨소리] 이상하네. 모르는 번호가, 네 여보세요. 혹시 그 차 가져오셨나요? 그럼 그 미술관 지하에 잠깐 정차하시고 누가 물어보면 잠깐 올라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당근이 와서.

이여로 42:53

어떤 거 파세요?

이예현 42:55

저 테이블.

[당근 중]

이여로 43:50

다른 것들도 파세요?

이예현 43:58

마지막 날 3일 동안 판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그때가 진짜 페어가 될 것 같아요(웃음).

이여로 44:26

오늘 좀 짬하려고 그랬는데.

이예현 3 44:29

짬 하실래요? 이 가구들이 아깝죠.

이여로 44:35

그러게요. 왕은지 디자이너가 만드신 귀한 가구라서.

[당근 중]

이여로 51:52

수건과화환이 남기고 싶은 게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이예현 52:31

'사라진다'는 개념이 확 박혔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사라진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 같거든요.

이여로 52:42

오히려 사라지는 게.

이예현 52:43

네, 생겨나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WRM(What Really Matters)이 사라진 게 저에게는 그랬고, 시작이나 과정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사라짐으로써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위치였는지가 확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또 사라짐으로써 어떤 걸 다시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경각심 같은 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생겨난 것보다 있던 게 사라지는 게 더 그럴잖아요. 인연이나 물건도 그렇고 작품이나 전시도 똑같지 않을까.

이여로 53:32

앞에 붙여놓으신 '대자보 쓰기'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하셨던 거잖아요.

이예현 53:39

맞아요. 〈화이트 큐브에 붙이는 대자보〉에서 좀 각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전시라는 게 결국 작가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데, 요즘엔 전시라는 형식만 너무 비대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요즘 공간이 많이 생기기도 했구요.

이예현 54:56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이여로 55:12

[REDACTED]

이예현 55:40

[REDACTED]

이여로 56:44

오프라인에서의 경향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도 최근에 많이 생겼더라구요. 하지만 시대 정신의 변화일까, 가령 크리틱-칼이 활동했던 2010년대에는 특정 제도와 같은 단일한 대상에 대한 공통의 의식이 강했는데, 그게 주로 압박을 받는 모양새였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불만을 표할 필요와 수요가 많았고, 크리틱-칼 자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공장미술제에 대해서 태림 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걸 올릴 곳이 없으니까 직접 올릴 곳을 만든다. 그렇게 크리틱-칼이라는 자유 기고 형태의

플랫폼이 생긴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크리티크-칼에 올리면 볼 사람은 다 본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일반성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일지 크리티크-칼 말미에는 오히려 그 '열림'을 이용한 혐오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때 필자들 이후 행적을 보면 성범죄 저지르고 2차가해하고 지원사업 횡령하다 찢리고... 크리티크-칼이 결정적으로 문을 닫게 된 건 ■■■이 검열을 당했다고 주장해서인데, 이미지 저작권을 해결하자는 걸 검열이라 주장했죠. 그 소동을 자기 웹진을 열기 위해 이용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될 때는 소극으로." 처음에는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발현이었는데, 그걸 보고 따라할 때에는 소극이 되는. 웹진 ■과 ■은 성폭력 2차가해로 공론화되었고요.

이제 생기는 온라인 공간들은 미술을 매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서울 외 지역의 전시를 다루는 부산 공간 힘의 웹진 무력이라던가, 작년 <덴탈 크리티크>에서 함께 했던 에포케레테, 마코, 앱스, 인무브, 학회주 여러분들도 그렇구요. 각자의 닫힘을 전제한 뒤에, 독립된 단위로서 함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어떤 곳이 내가 일반 명사로서의 미술을 말하겠어, 전체로서 미술을 다루겠어, 미술 안에서 무언가를 규합하겠어, 이런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위치 지어진 지식(Situated Knowledges)을 나누고, 미술이 실체를 가진 보편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로 건너가게 만드는 매개적 보편이 되어가는거죠. 지금처럼 각자 독립된 소규모의 단체들이 많아진 게 건강한 게 아닐까.

이예현 59:03

맞아요. 기존에 전체를 보면서 보지 못했던 작은 단위의 장르별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오히려 작은 단위에서 더 잘 다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북페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북페어는 그런 작은 집단을 모으니까.

이여로 59:22

수건과화환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예현 59:28

페어의 중간 단계였다고 생각해요.

이여로 59:42

더 이상 미술계에 담론이 없다는 불만도 종종 접하는데, 그것에 편승해서 커리어를 쌓은 이들이 아쉬운 거겠죠. 담론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중앙집중화되어서 이뤄지지 않으니까.

이예현 1:00:30

담론이 있으면 좋긴 한데 예전에는 그게 너무 권위적이었다거나 특정 소수만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여로 1:00:38

하나의 담론이 현장에 있는 모두의 욕구나 욕망을 담지 못하는 제한적인 것인데, 그걸 일반화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억압이었던거죠.

이예현 1:00:53

맞아요, 그게 유효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이여로 1:01:01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개발이 완료되고 제도화가 강해진, 일명 선진국 대열에 들면서, 더 이상 억압이 가시화되지 않다보니까, 그거에 저항하거나 표현하려는 욕구나 욕망 자체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억압하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이예현 1:02:43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서 못이 튀어나오듯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표현의 기회가 적다보니 더 같고 닳기도 하고, 요즘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표출하니 표현 자체도 무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을 받아서 전시를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왜

전시해야 되지라는 질문 자체가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는 기금을 못 받고, 왜 그런 데가 기금을 받는지, 라는 것보다 왜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만 썬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여로 1:05:56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이예현 1:06:00

순응적이 된 것 같아요. 초기 신생공간처럼 작가들이 저항성을 가지고 했던 시기는 확실히 좀 지나간 것 같은데,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제가 지향하는 방향에서는 그런 작가님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여로 1:08:07

[REDACTED]

[REDACTED]

[REDACTED]

이예현 1:0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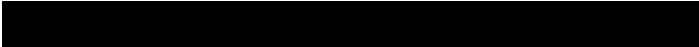
[REDACTED]

[REDACTED]

이여로 1:09:07



이예현 1:09:11



이여로 1:09:51



이예현 1:12:17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